

톱95에서 만난 뜻밖의 인물

관람객 사로잡은 고요와 사색의 정신세계

여성박람회 미술전시관의 유일한 '동양여성' 송남희 씨

여성박람회에는 여성예술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있었다. 4천 평방미터 이상의 넓직한 공간에는 여성예술가 1백15명의 그림과 조각 등 각종 예술작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여성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 '여성적 시각'이란 무엇인가가 한 눈에 드러났다. 생명존중, 다양성의 문화, 문화적 상대성의 수용, 관용, 소박한 소재와 기법으로도 한층 깊게 나타나는 내면...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전시회장 한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각국의 토속적인 마스크들이 이를 상징하는 듯 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여성문화사무소 리타 티스의 말처럼 "예술은 더이상 남성 지대가 아님"을 선언하는 이 자리에 유일한 동양여성이 있었다. 송남희 씨가 그 주인공.

미술전시장 한켠에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부스가 그의 전시장이다. 한번 발길을 멈추면 유난히 오랜 시간 관람객의 발길을 붙드는 이 부스는 다른 작가들의 전시장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제 작품들에 대해선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본대로 느낀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가장 좋은 해석이지요." 그의 작품을 감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길지 않은 그와의 대화만으로도 그것이 그가 자신의 삶에서 터득한 지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세의 나이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그는 "늘 나의 일이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늙지 않았다"며 소녀처럼 웃었다. 그는 경제적 풍요는 없어도 마음은 넉넉했던 우리의 60년대식 순수함을 오십이 되도록 간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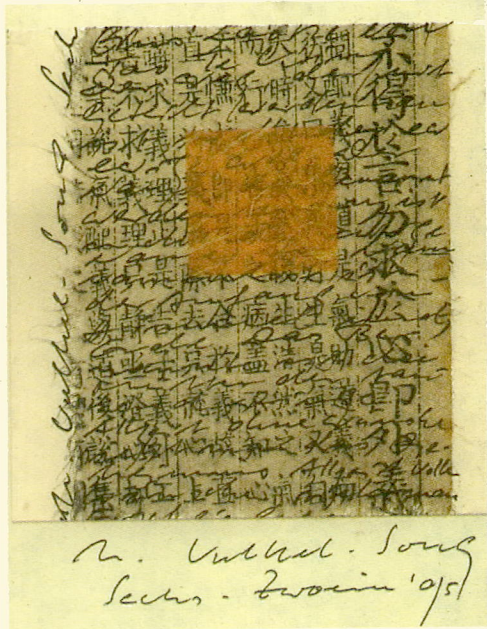
그는 올해로 독일 생활 28년째의 재독교포였다. 45년 전북 익산에서 출생해 67년에 독일로 온 그이지만 호사하게 미술유학을 온 것은 아니었다. 간호원이 되려고 이곳에 온 그이는 공부중에 독일인을 만나 결혼하지만 서른 셋의 나이에 혼자가 된다. 남편 발작을 써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미 다섯살과 두살짜리 남매를 두었던 그는 밤낮으로 나가 생활비를 벌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가 자신의 예술적 기질을 깨닫기

게달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유연상이 되어 그림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림으로써 그는 힘겨운 고통으로만 느낄 수도 있었던 세상과 화해한 것이다.

그는 76년부터 전시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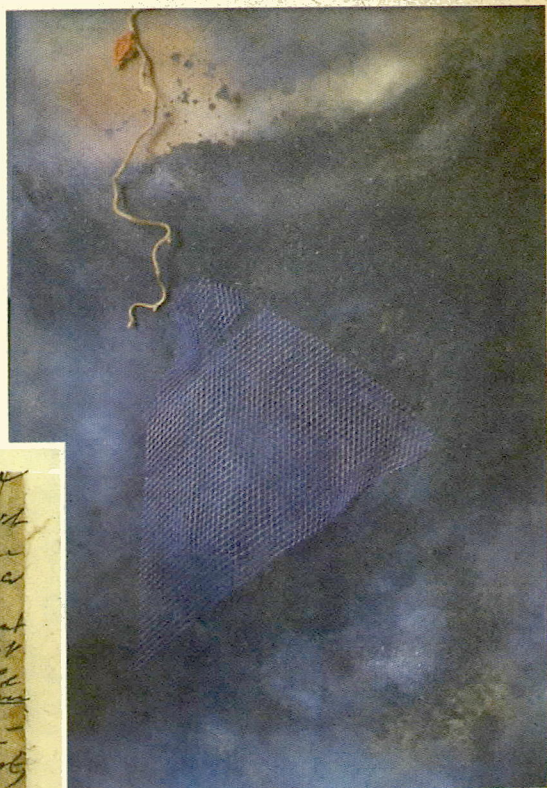
열기 시작했다. 카셀, 브레멘,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의 독일 지역 뿐만 아니라 벨기



오는 저력과 편안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원초적인 고요다. 여러 얼굴을 지닌 여자. 그는 해방되었는가. 물론이다. 아주 독특하고 사색적인 의미에서

80년에 독일 국적을 취득한 그는 같은 해에 자신이 거주하던 비트겐슈타인에 예술협회를 설립한다. 이 협회는 송남희 씨 외에 프랑스 여성 1명, 오스

트리아 남성 1명등 3명이 모여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곳 예술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인정받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이 그룹은 "세상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의 상징"처럼 인식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지역예술가이면서 국제적인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91년에 완성한 콜라주. <꿈꾸는 영혼>. 80X60Cm
◀한지로 된 노자의 도덕경과 독일어가 한자위에 함께 어우러진 작품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미술전시장 송남희 씨 부스.

115명 여성예술가 중 유일

간호원으로 건너가 삶의 고통속에 예술가로 거듭나

'이심전심' 관람객들 큰 호응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삶의 무게가 그를 한껏 짓누를 때였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지금껏 불교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불경을 읽으며 삶의 에너지를 얻었고 노자의 도덕경에 심취하며 자신을 관조하는 방법을

에,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중국에서도 전시회를 열었고 그때마다 '이심전심'의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곧잘 이런 평가를 내리곤 했다.

'그의 그림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 그림들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는 깊은 곳에서 나

그가 드러내놓고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어도 사람들은 "극동의 존재양식, 고향의 존재양식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그 빛을 약화시켜 본적이 없다"거나 "내적 존재를 표현해 우리들에게 잘 물려준 세상을 열어준 한국 출신의 유럽여인"이라는 말로 그의 정서적 모태를 말하곤 한다.

87년부터는 동양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난 92년부터는 지역인들을 대상으로 붓글씨를 가르치는 '마음 선생'이기도 한 그는 91년부터 독일 방송통신대학서 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하 나를 잃으면 새 것을 얻게 마련입니다. 고통도 살아가는 에너지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무언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올해 24세인 아들 마쿠스와 21세인 딸 니나 수를 둔 송남희 씨는 일생의 기념이 될 수 있는 작품집을 한권 내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람회 세째날 그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그의 삶이 주는 감동은 우연이 이루어준 '인연'의 충만감으로 우리를 기쁘게 했다. 작품속의 불교나 노장사상보다 한지나 베 그리고 색깔이 주는 신비함속에 빠져드는 외국인들이 그 앞에 오래도록 머무는 까닭이기도 했다.

교육과 재교육으로 잡은 건 이것이야말로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 모든 일터에서 우세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독일은 아직도 전 산업에서 간부직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6% 정도로 극심하게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관문을 통과하고 간부직에 올라가도 그들의 급여수준은 남자보다 20% 가량 적어요. 영향력 있는 정치나 경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건 우리 여성들이 힘을 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성박람회의 대외위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 연방의회 국회의장 리타 쥐스무트는 "참을 수 없는 것은 더이상 감내하지 않는 새로운 여성, 인간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지혜의 자리라는 생각에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대외 후원인직을 맡았다"고 말했다.

독일 여성운동 네트워크의 실마리가 된 여성박람회. 이 행사를 마련한 세 도시의 여성공무원들이나 이곳을 찾은 수만명의 '라인강변의 강한 여자들'은 한결같이 이 박람회가 평등권리의 메카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미래는 꿈꾸는 여자들의 것"임을 이들은 의심치 않았다.

(뒤셀도르프=최창희 기자)

필론에 분부를 두고 7만부를 발행하는 독일 최대의 여성정론지 <엠마>의 만화가 프란치스카 베커(44). 여성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엠마)엔 여성들로 가득했다. 베커는 애독자들을 위해 가까이 사인회를 열었다. 독일 여성운동의 상징이 된 <엠마>의 편집장 엘리사 슈바처와 함께 이 잡지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인 베커는 그 특유의 풍자와 해학이 담긴 만화를 그리는 페미니스트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진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김재희씨가 선물한 한지부채를 들고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베커. 김 씨가 "한국의 엠마"라며 본지와 기사를 소개하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여성신문의 건투를 빌며 즉석에서 그린 베커의 카툰. "사랑과 행복을 빌며"라고 썼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사람
프란치스카 베커

